

현안과제연구

# Issue Report

2015. 12. 20

##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개발수요와 발전방안

이관률

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, [krlee@cni.re.kr](mailto:krlee@cni.re.kr)

본 연구의 목적은 금산군 자연치유마을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,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.

### 요 약

#### CONTENTS

##### < 요 약 >

1. 서론
2. 기존 추진정책과  
개발수요 도출
3. 마을의 발전방안 모색
4. 결론

- 금산군이 추진해 온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성공적인 농촌발전 모델로 평가됨.
  - 생태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사례는 유럽의 농촌발전모델과 유사한 성공사례임.
  - 기존의 정책이 주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면, 앞으로는 마을의 주체 간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.
- 가장 우선적으로 “원주민-이주민-학교가 함께하는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  - 발전협의회 구성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, 금산군의 관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임.
  - 발전협의회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함.
-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 사업은 서로가 공감하는 것,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.
  -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생태적 경관 보전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.
  -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상호간의 자원과 역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이를 위해서 금산군 및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, 주민 스스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임.
  - 금산군과 각종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, 주민역량교육, 마을컨설팅 등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.
  - 마을주민들도 상호 이해적 관점에서 관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, 일정 정도의 비용부담을 함.

- 금산군은 2008년부터 상곡리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조성해 오고 있음.
  - 2008년 12월 “환경성 질환의 친환경 예방관리계획 학술연구(2008. 12 ~ 2009. 11)”을 시작하면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.

<표 1>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추진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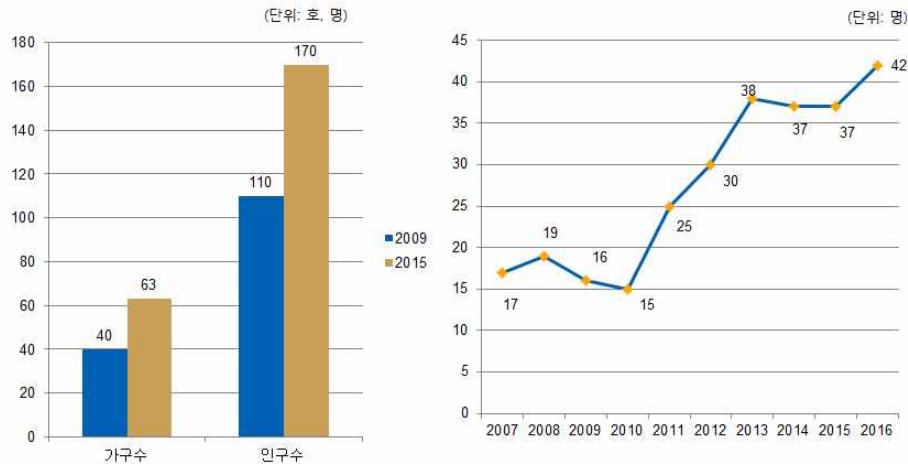
- 2008. 12 ~ 2009. 11: 환경성 질환의 친환경 예방관리계획 학술연구 수행
- 2009. 7 ~ 11: 희망 아토피 천식 캠프 위탁운영(5회, 320명)
- 2010. 4 ~ 11: 희망 아토피 천식 캠프 위탁운영(5회, 200명)
  - 캠프 참여가족의 이주의사 95% 확인
- 2010. 7: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
- 2010. 7: 황토민박집 4채 확보 및 최초 이주
- 2010. 10: 희망마을만들기 사업(마을발전계획서 작성)
- 2010. 11: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
- 2011: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연계 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
- 2011. 11: 아토피 케어센터 준공
- 2011~2015: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(29동), 향후 11동 추가 예정
- 2014. 2: 도시·농촌 간 행복 아토피릴리지 연계 육성사업 신청(금산, 성남, 장수)
- 2014. 10: 아토피 치유 축제 및 캠프
- 2014, 10 ~ 2015. 10: 상곡초등학교 증개축
- 2015. 3: 미래꿈센터 건립
- 2015. 5: 금산군-성남시 아토피 상호협력 협약체결
- 2015. 12: 금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성화 정책세미나 개최

자료: 금산군 내부자료 및 인터뷰 내용

●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조성으로 인해 상곡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– 2015년 현재 인구수는 170명이고, 상곡초 학생수는 42명임. 그러나 2009년의 인구수는 110명이었고, 학생수는 17명이었음.

– 2016년에도 성남시에서 추가적으로 5가구가 더 전입할 예정임.



[그림 1] 상곡리의 인구수와 상곡초의 학생수

● 상곡리 자연치유마을의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, 상곡리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.

– 상곡리 주민들의 평균소득은 1천만원 이하이고, 인삼, 고추, 벼를 중심으로 한 관행재배를 하고 있음.

– 상곡리는 아토피를 주제로 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,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.

– 한편 고령화율이 53.5%이고,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매년 마을 내 휴경지와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.

● 따라서 본 연구는 금산군 자연치유마을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,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– 이를 위해서 자연치유마을의 3대 주체인 원주민, 이주민, 학교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,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–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온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, 상곡리의 마을발전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.

### 1) 기존 추진정책과 평가

- 금산군에서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구성에 집중해 왔음.
  - 금산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자연치유마을 구성을 위해서 총 29동의 주택을 건설하였고, 앞으로 11동을 추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.
  - 이를 통해서 총 50여명의 도시민이 상곡리로 이주해 오는 효과를 가져왔고, 우리나라 유일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로 발전할 수 있었음.
- 상곡초는 아토피와 관련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고, 2015년에는 학교를 증개축 하였음.
  -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실내외 환경조성과 아토피 관련 연수 및 홍보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.
  - 아토피 피부염 케어 프로그램(족욕, 아토피 정기검진)을 운영하고 있고, 음악치료 프로그램(오케스트라, 동요, 피아노)을 운영하고 있으며, 친환경 농산물 급식 프로그램, 숲과 함께하는 자연학교 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음.
  - 2015년에는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학교를 아토피 치유에 좋은 환경을 갖춘 교사로 증개축 하였음.
- 상곡리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  - 2013년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계획만 수립되었고, 2014년 아토피릴리지 연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선정에서 미선정 되었음.
  - 2015년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쉼터, 건강마당, 산촌유학

센터, 산꽃로 상징가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<표 2> 상곡리 마을개발계획의 주요내용

희망마을만들기 계획 수립(2013)	아토피프릴리지 연계사업 신청(2014)	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(201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꽃길 조성</li> <li>- 빈집 정비</li> <li>- 쓰레기 분리장 설치</li> <li>- 운동시설 설치</li> <li>- 산촌유학센터</li> <li>- 도보 탐방로</li> <li>- 물놀이장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토피 힐링타운 주거동 확충</li> <li>- 주민-이주민 커뮤니티 센터 건립</li> <li>- 아토피 특화 친환경 꾸러미 사업</li> <li>- 아토피 관리제품 개발</li> <li>- 아토피 치유 및 체험프로그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쉼터</li> <li>- 건강마당</li> <li>- 산촌유학센터</li> <li>- 산꽃로 상징가로</li> </ul>
계획만 수립	미선정	현재 계획 수립중

- 기존 정책은 주로 물리적 정책에 치중되어 왔고,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학교 교육, 그리고 마을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음.
  -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원활히 확충한 것으로 판단됨.
  - 그러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, 그리고 원주민, 이주민, 학교의 3자간 발전이 연계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.
- 특히 상곡리 마을개발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주제가 전혀 연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.
  - 희망마을만들기사업(2013)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(2015) 중에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된 것은 산촌유학센터가 유일함.
  -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아토피프릴리지 연계사업(2014)은 최종 선정되지 못한 상태임.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향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확충과 아토피 치유마을의 주체의 단일화가 요구됨.
  - 아울러 학교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유기적 네트워크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2) 주체별 개발수요의 도출

-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개발수요는 원주민, 이주민, 그리고 학교의 3주체적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됨.
  - 실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,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, 그리고 상곡초등학교의 3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  - 본 연구를 위해서 원주민, 이주민, 그리고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2015. 11. 1 ~ 31일까지 수행하였음.
- 원주민의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음.
  - 펜션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
  - 농산물 직거래 매장 등 주민수익사업
  - 학교운영의 참가
  - 아토피 관련행사에 노력봉사 시정
  - 마을사무장 채용
  - 방학 및 주말의 비거주 등 이주민의 잦은 이동
  - 노인복지서비스
  - 주민역량교육
  - 소하천 정비
- 이주민의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음
  - 펜션으로 인한 난개발
  - 떠날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견 해소

- 주거공간의 협소 및 노후화
- 아토피 환우에 대한 정책지원
- 부업 차원의 일자리
- 방문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
- 지역사회와의 아토피 이해(학교 지각, 마을 관심 부족 등)
-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(이장선거 참여 등)
- 울창한 산림의 적극적 활용
- 중·고등학교의 체계적 연계
- 소하천 정비

● 학교의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음

- 실내체육관 건립(아토피 환우는 햇빛에 취약)
- 학교운영 및 특성화 교육 예산 부족(악기 수리 등)
- 아토피 치료 수요 등 학교에 많은 기대감

### 3) 개발수요의 종합

● 원주민과 이주민의 개발수요는 공통적인 측면과 상충적인 측면이 있으나, 학교와 원주민, 이주민의 개발수요는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따라서 3주체 혹은 2주체가 먼저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상호 협의 하여 협력하는 것이 요구됨.
-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은 3주체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요구됨.

●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펜션으로 인한 난개발과 소하천 정비가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.

- 이런 측면에서 볼 때, 상곡리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- 원주민과 이주민은 주민수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- 원주민은 주민수익사업, 마을사무장, 노인복지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데, 이들 사업의 경우 이주민이 일정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 - 특히 이주민 역시 부업 차원에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.
  
- 그러나 원주민과 이주민은 상호간의 소통의 부재로 상호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원주민은 이주민이 마을 내 거주하지 않는다, 떠날 사람으로 인식하는 반면, 이주민은 원주민이 마을주민으로 배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.
  - 그러나 다수의 이주민은 도시에 주거지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, 상곡리로 안전한 이주했고, 향후 장기적 정착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.
  
- 반면 학교와 원주민, 이주민의 관계에서는 개발수요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, 상호간의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음.
  -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토피 특성화교육에 따른 예산부족과 아토피 학교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대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.
  - 원주민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운영에 참가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음.
  - 이주민은 아토피 환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·고등학교와 체계적 연계 등을 요구하고 있음.



### 1) 지속적 기반의 확충

#### ● 아토피 치유마을의 추가 조성 및 다양한 주거시설의 확충

- 현재 조성된 아토피 치유마을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택을 조성하고, 기존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아울러 현재 소규모 주택 중심에서 탈피해 중대규모로 주거의 유형을 보다 다양화 나가야 할 것임.

#### ● 아토피 치유마을 커뮤니티 센터 및 아토피 치유 박물관 건립

- 마을의 다양한 주체, 그리고 도시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아토피 치유 마을의 커뮤니티센터의 조성이 요구됨.
- 아울러 아토피 치유마을과 아토피 치유에 관한 각종 자료와 기록을 정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아토피 치유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함.

#### ● 아토피 힐링캠프의 정례화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

- 방학기간 혹은 주말, 연휴 등을 활용한 중·단기 아토피 힐링캠프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.
- 아울러 아토피 치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 하도록 해야 할 것임.

## 2) 생태적 경관의 보전

- 무질서한 펜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마을규약 및 마을환경정비
  - 현재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펜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내 토지거래와 건축형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자율적인 마을규약을 운영하도록 함.
  - 마을환경의 저해요인인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꽃길, 벽화길 등을 통한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.
- 상곡천 생태하천정비 및 물놀이 시설의 확충
  - 상곡천 주변의 쓰레기 청소와 풀베기 등을 통해 하천경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.
  - 아울러 상곡천에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확충함과 함께 다슬기 민물고기 생태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함.
- 주변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기반 확충 및 산림학습장 확충
  - 마을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책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치유기반을 확충하도록 함.
  - 아울러 상곡초 학생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산림학습장을 확충하도록 함.

## 3) 공동체 교류의 확대

- 원주민-이주민-학교가 함께하는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
  - 원주민, 이주민, 학교의 3주체가 참여하고, 금산군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함.
  -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에서는 3주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,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, 이를 위해 최소 2달에

1번씩 개최하도록 함.

● 마을리더 육성 및 아토피·아토피치유를 주제로 한 주민교육 추진

-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함.
- 아울러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의 내용은 아토피와 아토피 치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함.

● 공동체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중·고등학교 연계과정 확충

- 원주민과 이주민의 공동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. 이의 일환으로 중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멀티케어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함.
- 아울러 현재 상곡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토피치유학교의 운영시스템을 금산군의 중·고등학교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.

## 4) 다양한 경제적 활동

●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 및 신선채소 등 전락작목의 재배

- 아토피 치유에 효과가 있는 채소(삼미채 등)와 과일(수박, 토마토, 포도 등) 등을 전락작목으로 선정해 재배하도록 함.
- 장기적으로 상곡리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상곡초등학교 급식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함.

● 휴경농지의 임대 및 아토피 치유꾸러미 협동조합의 설립

- 현재 상곡리에 있는 휴경지를 찾아서 이주민 혹은 원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.
- 아울러 도시민과 직거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 치유꾸러미 협동

조합을 설립·운영하도록 함.

● 아토피 산촌힐링캠프와 산촌유학센터를 운영할 마을기업의 설립

-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아토피 산촌힐링캠프를 직접 운영하도록 함.
- 아울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산촌유학센터를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.

<표 3>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발전방안(안)

목표	주요사업
지속적 기반의 확충	아토피 치유마을의 추가 조성 및 다양한 주거시설의 확충 아토피 치유마을 커뮤니티 센터 및 아토피 치유 박물관 건립 아토피 힐링캠프의 정례화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
생태적 경관의 보전	무질서한 펜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마을규약 및 마을환경정비 상곡천 생태하천정비 및 물놀이 시설의 확충 주변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기반 확충 및 산림학습장 확충
공동체 교류의 확대	원주민-이주민-학교가 함께하는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을리더 육성 및 아토피·아토피치유를 주제로 한 주민교육 추진 공동체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중·고등학교 연계과정 확충
다양한 경제적 활동	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 및 신선채소 등 전략작목의 재배 휴경농지의 임대 및 아토피 치유꾸러미 협동조합의 설립 아토피 산촌힐링캠프와 산촌유학센터를 운영할 마을기업의 설립

- 금산군이 추진해 온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성공적인 농촌발전모델로 평가됨.
  - 생태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사례는 유럽의 농촌발전모델과 유사한 매우 선진적 형태이고,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.
  - 기존의 정책이 주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면, 앞으로는 마을의 주체 간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.
  
-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 “원주민-이주민-학교가 함께하는 아토피 치유마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  - 발전협의회 구성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, 금산군의 관계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야 다양한 의견소통과 갈등조정이 이루어져야 함.
  - 발전협의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함.
  -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경우,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의 구체화하고 우선순위화해 추진해 나가도록 함.
  
- 그리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 사업은 서로가 공감하는 것,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.
  -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생태적 경관 보전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.
  -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상호간의 자원과 역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이를 위해서는 금산군 및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, 주민 스스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임.
  - 금산군과 각종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, 주민역량교육, 마을컨설팅 등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.
  - 마을주민들도 상호 이해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, 일정 정도의 비용부담을 해야 함.

## ◆ 참고 자료 ◆

- 금산군(2012),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 및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, 내부자료.
- 금산군(2013), 2012년 금산군 희망마을만들기: 상곡1리 마을발전계획서.
- 금산군(2013),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, 내부자료.
- 금산군(2014),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: 도시·농촌 간 행복 아토피릴리지 연계 육성사업.
- 금산군(2015), 금산군·성남시 아토피 상호협력 협력 체결, 내부자료.
- 금산군보건소(2010), 아토피·천식 치유희망마을 조성 중기 추진계획, 내부자료.
- 이관률(2013),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 방안, 충남연구원.
- 이관률(2015), 금산군 아토피 치유마을: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모델, 지역정보 제3호, 한국지역개발학회.